



빛고을, 젊음의 날개 펼쳐다



젊음과 열정의 상징이자 세계 대학 스포츠 축제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가 3일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식을 갖고 1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열전의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 축포가 솟아오르며 경기장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계 대학생 올림픽’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열전 12일 돌입

개회식 박근혜 대통령, 갈리앙 FISU 회장, 윤장현·김항식 공동조직위원장 등 참석

146개국 1만3천여명 선수들 14일까지 21개 종목 272개 금메달 놓고 우정의 승부

‘창조의 빛, 미래의 빛’ 유니버시아드 성화가 빛고을 광주를 밝혔다.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가 3일 오후 7시 광주 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12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의 영문 슬로건은 ‘Light of the Creation, Light of the Future(창조의 빛, 미래의 빛)’다.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젊은이들이 스포츠를 넘어 문화·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화합과 공영의 가치를 실현해 유니버시아드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다.

이날 개회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클로드 루이 갈리앙 FISU 회장, 윤장현·김항식 광주U대회 공동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젊음을 대표하는 스타들의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선수단 입장, 성화점화 행사 등이 200분가량 진행됐고, 다채로운 불

꽃놀이가 여름밤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146개국 1만3000여명의 선수단이 1시간 30분에 걸쳐 입장을 하며 하이라이트를 이뤘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을 시작으로 경기장에 들어온 선수들은 대학생 특유의 자유분방함을 보이며 세계 대학생 잔치의 시작을 알렸다.

개최국 대한민국은 마지막 순서인 146번째에 기수 이승현(농구·구교양 오리온스)을 선두로 ‘나는 자랑스런 국가대표다. 비상하라!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입장해 5만 여명 관중의 환호를 받았다.

이러 광주 스포츠를 대표하는 ‘육상 100m 한국 기록 보유자’ 김국영(광주시청)과 ‘한국 여자 유도 의 기대주’ 김성연(광주도 시철도공사)이 1만3000여명의 선수단을 대표해 정정당한 승부를 다짐하며 선서했다.

대회 12일간 주경기장을 밝힐 성화는 한

국인 첫 메이저리거인 박찬호와 2012 런던올림픽 올림픽 기계 체조 남자 도마 종목의 금메달리스트이자, 대한민국 체조 종목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에 의해 최종 점화돼 세계 젊은이들의 열정을 담고 활활 타올랐다. 대회 참가 선수들은 오는 14일까지 육상·수영·체조·양궁 등 21개 종목에 272개의 금메달을 놓고 우정 어린 경쟁을 벌인다.

역대 최대 규모인 516명의 선수단(선수 382명, 임원 134명)을 꾸린 한국은 금메달 25개 이상, 종합순위 3위 탈환을 목표로 세웠다. 태권도·유도·양궁·사격 등 전통적인 효자종목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노린다. 리듬체조 손연재(연세대), 기계체조 양학선(수원시청), 양궁의 기보배(광주시청)·최미선(광주여대), 배드민턴 이용대(삼성전기) 등 스타 선수들도 대거 출전한다.

메달레이스는 4일부터 펼쳐진다. 대회 1호 금메달은 이날 오후 1시15분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리는 다이빙 여자 1m



3일 밤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에서 공동 점화자로 나선 박찬호와 양학선이 성화를 합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프링보드에서 나오며, 한국도 이날 오후 6시15분 유도에서 첫 금메달을 노린다.

광주·전남 선수 중에서는 유도 김성연이 고향에서 ‘금빛 메치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취재단=박정욱·김여울기자 jwpark@



광주U대회 특집호

- 환영사·대회사·개회 선언 ▶2면 한눈에 보는 U대회 참가국 ▶6면
- 감동의 개막식 이모저모 ▶3면 불붙은 메달레이스·경기 일정 ▶7면
- 개막식 화보 ▶4·5면 7월 광주는 젊음의 축제 물결 ▶8면